

“생각보다 크기 컸지만... 추가투입·저소음 등 성능 기대이상”

☆☆☆ 꼼꼼 리뷰

휴롬 2세대 음식물처리기

작동 중 추가 투입에 편의성 강점 저소음 설계로 일상사용 부담 적어

초고온 건조·탈취필터 냄새 줄여 부피 최대 97% ↓, 배출 부담 덜어 보조금 지원 땀 구매 부담도 완화

‘크기는 생각보다 컸다. 성능은 기대보다 이상이다.’

휴롬이 만든 2세대 음식물 처리기(FD-B03)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느낌과 3주 가량을 써보고 나서는 후기는 한 마디로 이렇다.

이 제품은 바닥만 440mm×265mm다. 높이는 340mm에 이른다. 이 정도 크기면 분명 주방의 적지 않은 공간을 확실히 내주는 야량이 필요하다. 부엌 동선이 음식물 처리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도 과감히 써보기로 했다.

그런데 웬걸.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처음 가졌던 크기 부담은 기우였다.

제일 놀랍고 편리했던 점은 음식물을 건조(처리)하는 도중에 추가 투입이 가



휴롬이 만든 2세대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작동을 하니 건조 과정을 시작했다.



뒷면 전원선을 굴절식으로 바꾸면 공간을 3~4cm 정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승호 기자

능하다는 것이다. 이 제품의 최대 용량은 2.5리터(L)다. 일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2.5L까지 모아서 배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피도 부피거니와 냄새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휴롬 음식물처리기는 추가 투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음식물 처리기를 구입하고도 자주 쓰지 않는다는 지인이 있었는데 바로 추가 투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제품은 뚜껑을 열고 재투입만 하고 닫으면 바로 작동을 하는 똑똑함까지 갖췄다.

넣은 음식물을 건조할 때는 통이 뜨거워지는데 재투입할 때도 음성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음식물 처리기 사용을 꺼리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음과 냄새다. 그런 면에서 휴롬 음식물 처리기는 소리도, 악취도 없다. 전혀 없진 않지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분쇄식이라면 분명 소리가 컸을 것이다. 이 제품은 건조식이다. 전기밥솥의 소음보다도 작다. 휴롬의 설명대로라면 BLDC(브러시리스DC) 모터 중에서도 정밀한 동작에

사용되는 스테퍼 모터와 25dB(데시벨) 수준의 저소음으로 설계한 덕분이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

냄새 역시 코를 대고 큼큼 거려도 맡기가 쉽지 않다. 시간이 지난 음식물 쓰레기가 주는 역한 냄새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식물을 120℃의 초고온으로 건조해 수분을 제거하는 동시에 활성탄으로 된 탈취필터를 장착한 덕분이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탈취필터는 가장 심한 생선 비린내를 5분의 1수준으로 낮춰준다.

냄새를 없애는 이 탈취필터가 요물이다. 사양대로라면 필터는 3개월에 한번씩 교체해야한다. 하지만 이 제품에 있는 필터는 물로 세척한 후 열풍건조(에코모드)로 말려서 재사용하면 된다. 친환경적인데다 비용도 아낄 수 있다. 다만 세척해서 쓸 경우 필터는 4개월마다 한번씩 교체할 것을 권하고 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음식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약 2000~3000원 수준이다. 큰 부담이 없어서 음식물 처리기가 꼭 필요할까도 생각했다.

문제는 환경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은 토양을 훼손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싸게 버릴 수는 있지만 환경을 생

각하면 대안이 필요한 일이다. 재활용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음식물 처리기는 가정에서 손쉽게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착한 가전’이다.

건조통에 넣은 음식물은 3시간 정도면 한줌의 재로 변한다. 마치 커피 찌꺼기를 보는 느낌이다. 눈으로 봐도 부피가 6분의 1, 7분이 1 정도로 줄어드는 느낌이다. 사양에 따르면 당초 넣은 음식물 찌꺼기보다 최대 96%나 부피가 감소한다.

무엇보다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좋았던 점은 매년 국물이 푹푹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 1층의 배출 장소까지 옮기기 위해 들여야했던 노력을 덜 해준다는 점이다. 여름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손과 마음을 더욱 가볍게 해주는 제품이기도 하다.

아쉬운 점도 하나 있다. 음식물 처리기는 구석에 자리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 이때문에 제품 뒷쪽 하단에 꽂는 전원코드를 굴절식으로 만들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 이 제품은 지역에 따라 최대 7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만큼 구매 부담도 낮출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나토·외국 무관단 잇단 방문... HD현대 해양방산 주목

구축함·호위함·잠수함 경쟁력 소개 AI 기반 자율운항·함정기술도 점검 유럽 방위비 확대에 협력 기대 커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전까지 터지면서 유럽과 중동국 등이 재무장과 군비확대를 서두르고 있는데 최근 HD현대의 해양방산 역량에 대한 주요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 군·외교 인사들의 생생한 방문이 잇따르고 있어 방위산업 협력과 장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HD현대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30개국 대사단은 지난 14일 경기 판교 글로벌R&D센터(GRC)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나토와 한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한한 대사단이 HD현대의 조선·방산 기술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나토 주재 대사는 각 회원국이 나토 본부에 파



나토 주재 30개국 대사단이 지난 14일 경기도 판교의 HD현대 글로벌R&D센터를 방문했다. /HD현대

견한 최고위급 외교관으로, 정치·군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핵심 인사들이다.

대사단은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무인수상정 등 HD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주요 함정과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선박 기술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역사관 ‘침운홀’과 디지털융합센터를 찾아 AI 기반 함정 솔루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선박,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 시운전 등 첨단 기술도 확인

했다. 유럽 주요국의 방위비 확대 흐름은 뚜렷하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EU 회원국 국방 예산은 지난 2021년 2180억 유로(약 378조원)에서 2024년 3260억 유로(566조원)로 늘었으며, 2027년까지 최소 1000억 유로 이상 추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내 재무장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군력 증강과 함정 현대화 수요 확대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

다. 마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은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25개국 주한 외국 무관단 30여명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조선소와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봤다. 외국 무관은 각국 대사관 소속 군사 담당관으로, 방산 협력과 무기 도입을 담당하는 실무 채널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한화솔루션

독일 WIRE 2026 출격 초고압·순환형 솔루션 공개

한화솔루션이 세계 최대 와이어·케이블 전시회에서 초고압케이블 소재 기술력과 순환형 솔루션을 앞세워 글로벌 고부가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화솔루션 Wire & Cable 부문은 17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와이어·케이블 전시회 ‘WIRE 2026’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초고압케이블 소재 기술력과 지속가능한 순환형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고 고부가 전력 케이블 소재 분야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비전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WIRE 2026’은 세계 주요 케이블 제조사와 소재 기업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대표 전시회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행사에서 “Best Quality, Better Planet(최고의 품질, 더 나은 지구)”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고성능 케이블 소재 기술력과 친환경 순환형 솔루션을 결합한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중동전 장기화에 1300억 수출바우처 푼다

중동 피해기업·K뷰티·K패션 등 우대 국제운송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 13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890.77p를 기록하며 7주 연속 상

승하고 중동 노선 운임이 사상 최고치인 1TEU당 4167달러를 기록하면서 내린 긴급 조치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800억원 규모의 일반바우처를 통해 약 2300개사를 지원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 현지 수출에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해 적기에 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업종과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K-뷰티, K-패션 등 전략 품목 기업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이다. 수출국 다변화 기업, 수출 고성장 기업, 테크서비스 활용기업에는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

모의 물류전용바우처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중동 지역 중심에서 ‘국제운송 이용 실적이 있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지원 항목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획기적으로 넓혔다. 기존 해상·항공 운임과 보험료뿐만 아니라 ▲바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샘플 운송비 ▲종합물류대행(풀필먼트) 서비스 ▲해외창고 임대료 ▲선적 전 검사료 등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김승호 기자



WIRE2026에 참가한 한화솔루션 현장.

/한화솔루션